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마산농악



▼언제

1996년 10월 16일(수)~18(금)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성남종합운동장

경 상 남 도



마산농악은

마산시 율림동(현 양덕2동)은 조선조 중기에 당산나무를 두척산(현 무학산)에서 옮겨와 터를 잡고 동제를 지내며 마을을 형성하였는데, 이 마을에는 가로 놓여있는 도랑(작은 강)이 있어 이 도랑을 사이에 두고 좌·우 마을로 나뉘었으며, 이 두 마을은 다시 윗마을, 아랫마을로 나뉘어 있었다.

이 네 마을에서는 오월 단오날에 당산나무 밑에 전 부락민이 모여 당산제를 지냈고, 마을의 안가태평과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농악놀이를 하였다.

이 마산농악은 축원두레농악으로 외마치 가락의 질굿, 덧배기 가락을 치며 덕석말이를 하여 당산나무에 놀이의 시작을 고하는 들당산굿, 풍년을 기원하는 살풀이(굿거리)굿, 오방신장에게 마을의 안가태평을 기원하는 오토지신굿, 상모쟁이들이 나와 농사짓는 과정을 보여주는 풍년굿, 당산나무에 놀이의 끝남을 고하는 날당산굿 등으로 행하는데, 특히 풍년굿 중 대나무를 손가락에 끼고 논매기를 하는 과정이 경상도의 특징이다.

뽕짜리는 흐튼가락으로 가락의 변화와 현란함이 극치를 이루며 다양한 가락의 변화보다는 진법의 변화가 많은 경상도 농악이다.

진법놀이

1. 질굿(외마치) 본부 인사
2. 들당산굿(마을 사람들이 모여 당산제)
3. 살풀이(굿거리)
4. 잽이굿
5. 오토 지신밟기
6. 고사리 꺾기
7. 덕석말이
8. 영산굿(연풍대)
9. 호호굿(연풍대, 본벅구놀이)
10. 풍년굿(뒤주쌓기)
11. 날당산굿(덕석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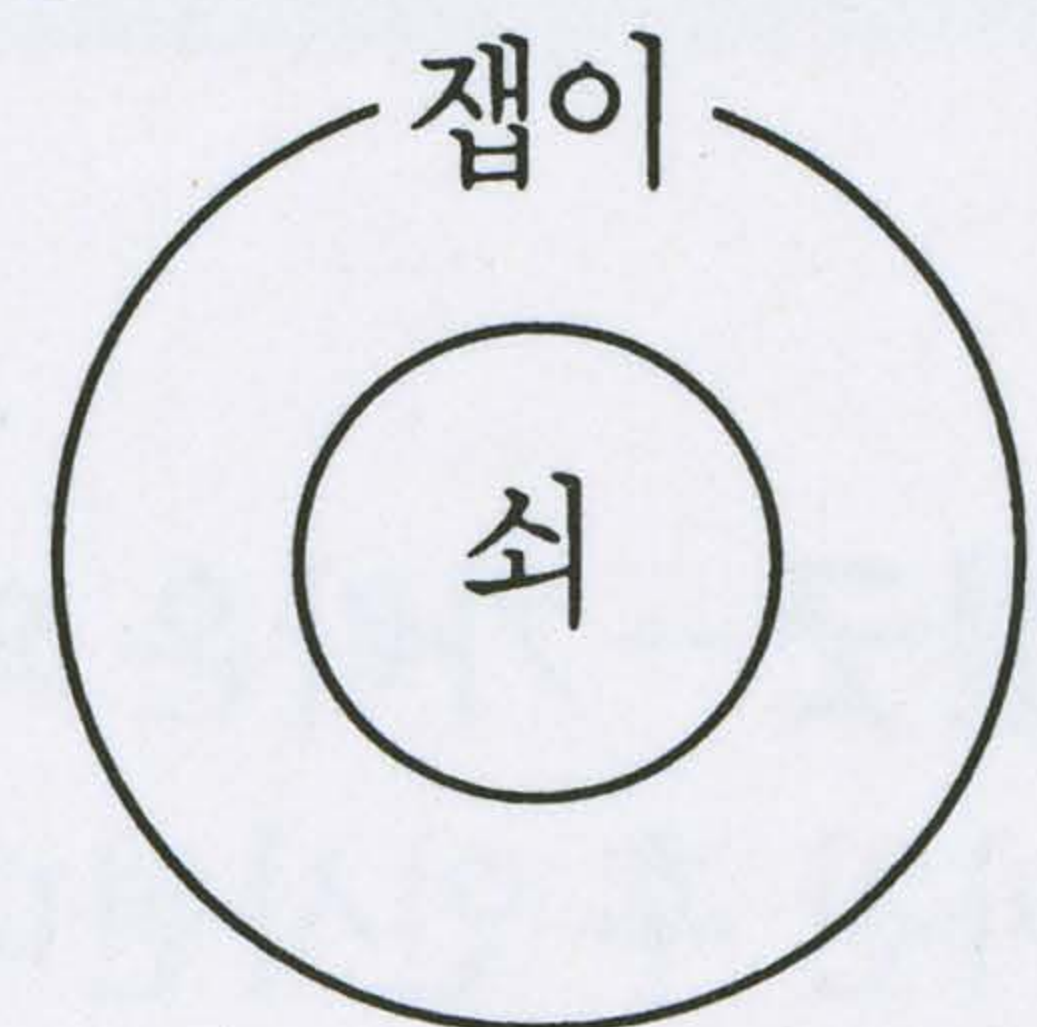
1. 질굿(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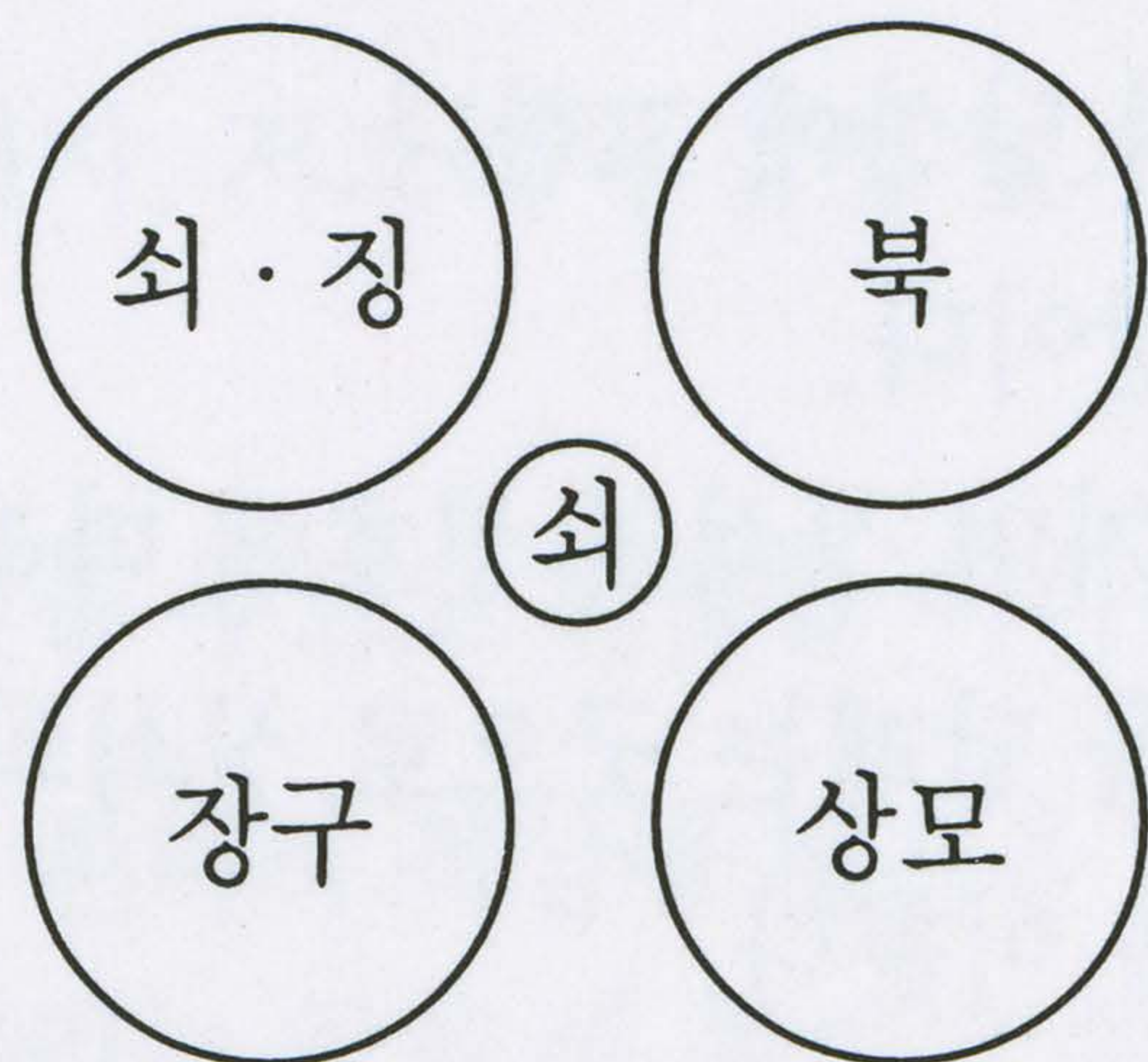
2. 들당산굿(제사)



3. 살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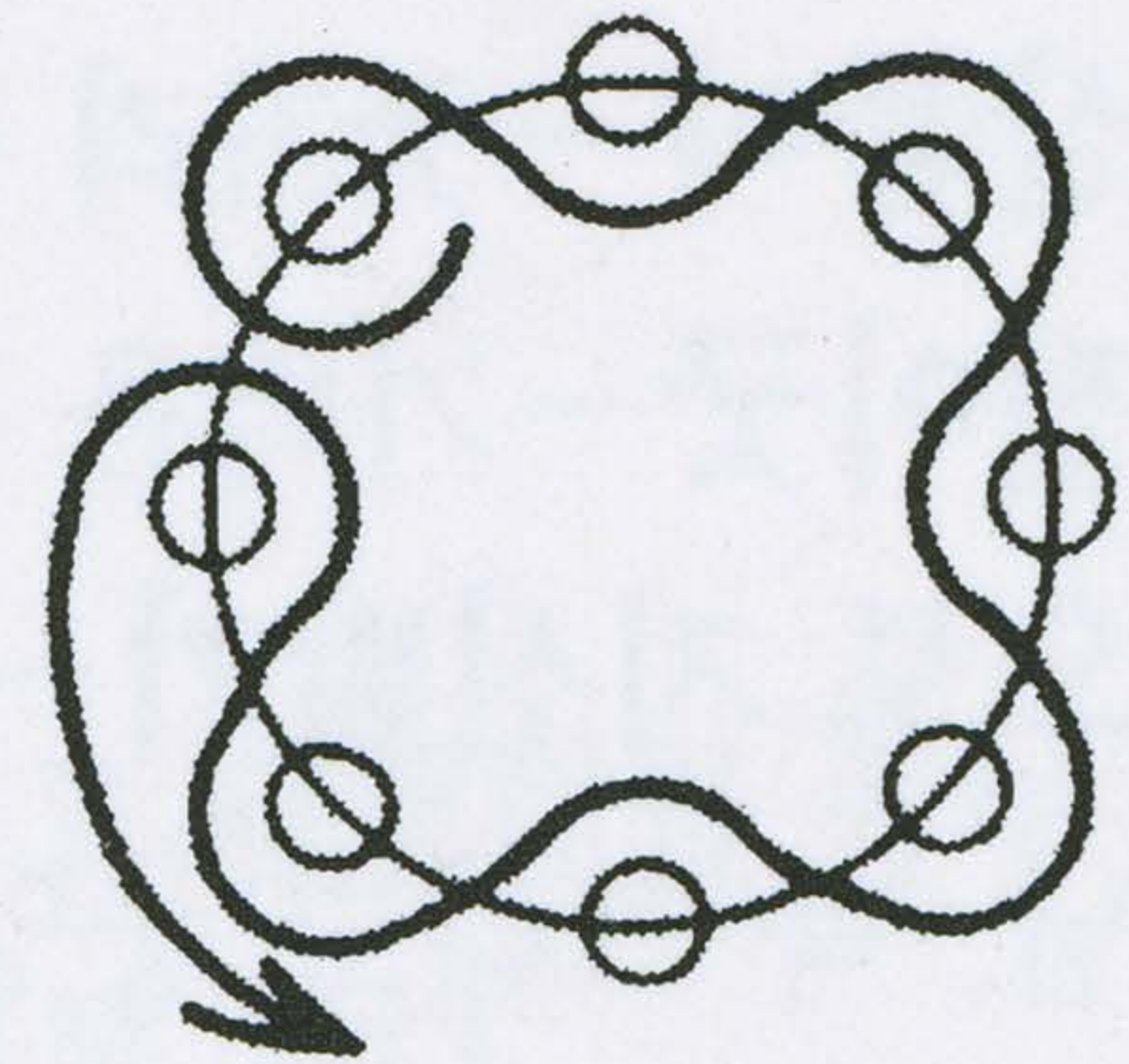


5. 오토지신밟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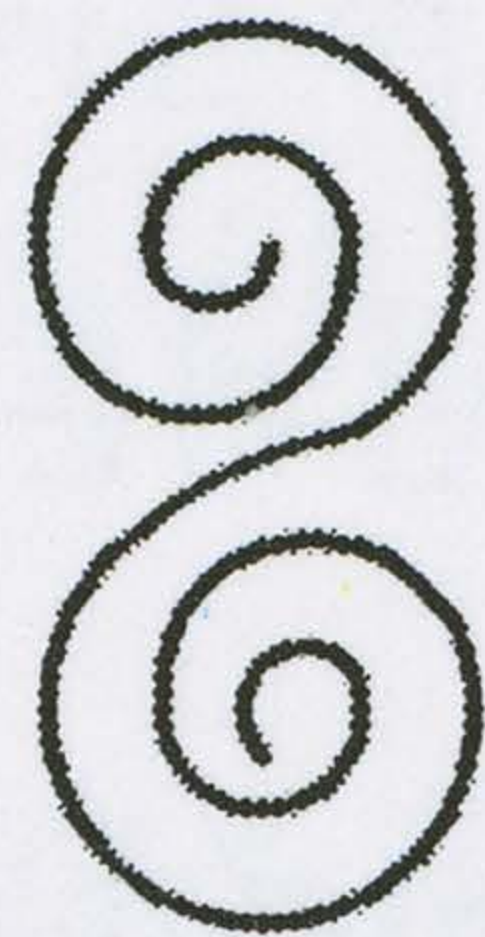


4. 잽이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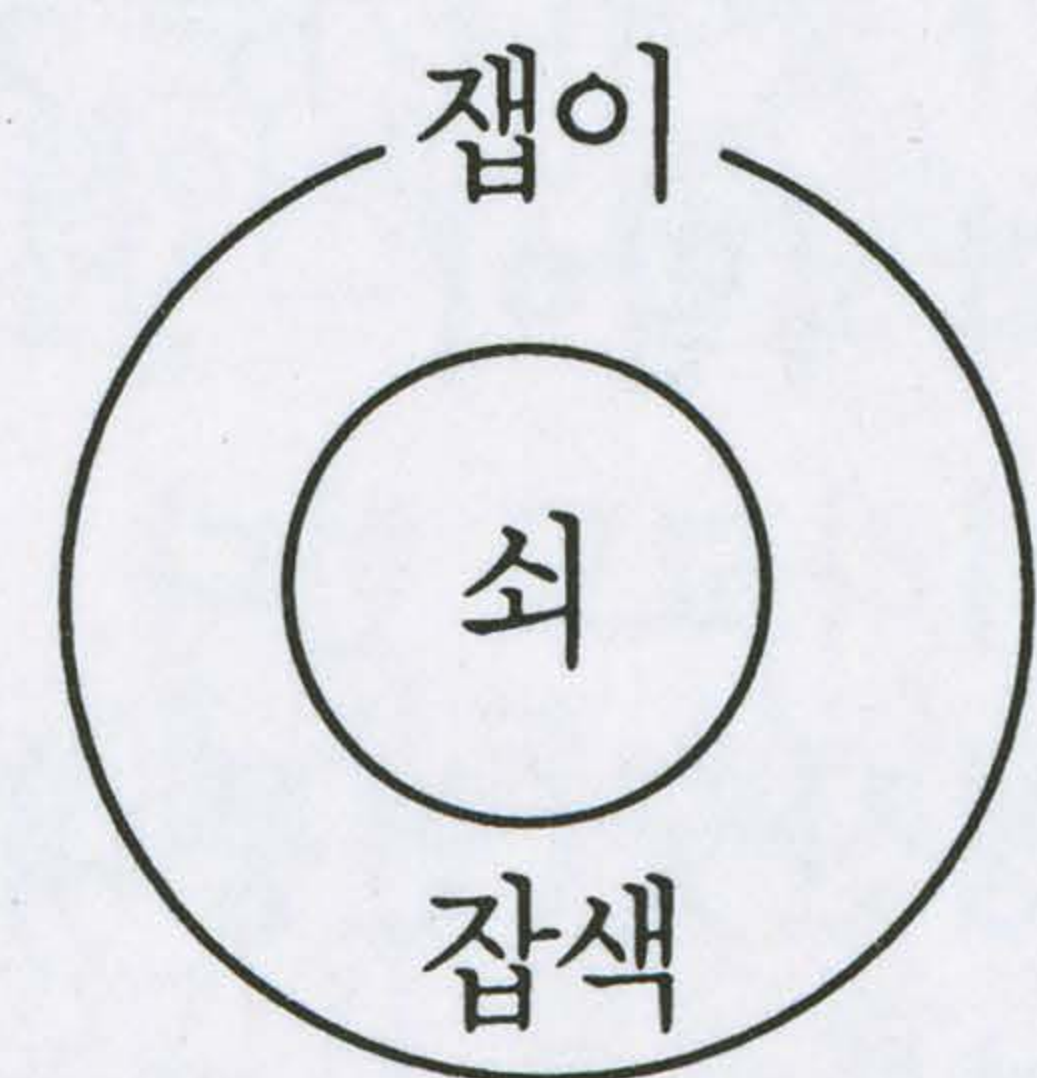
6. 고사리 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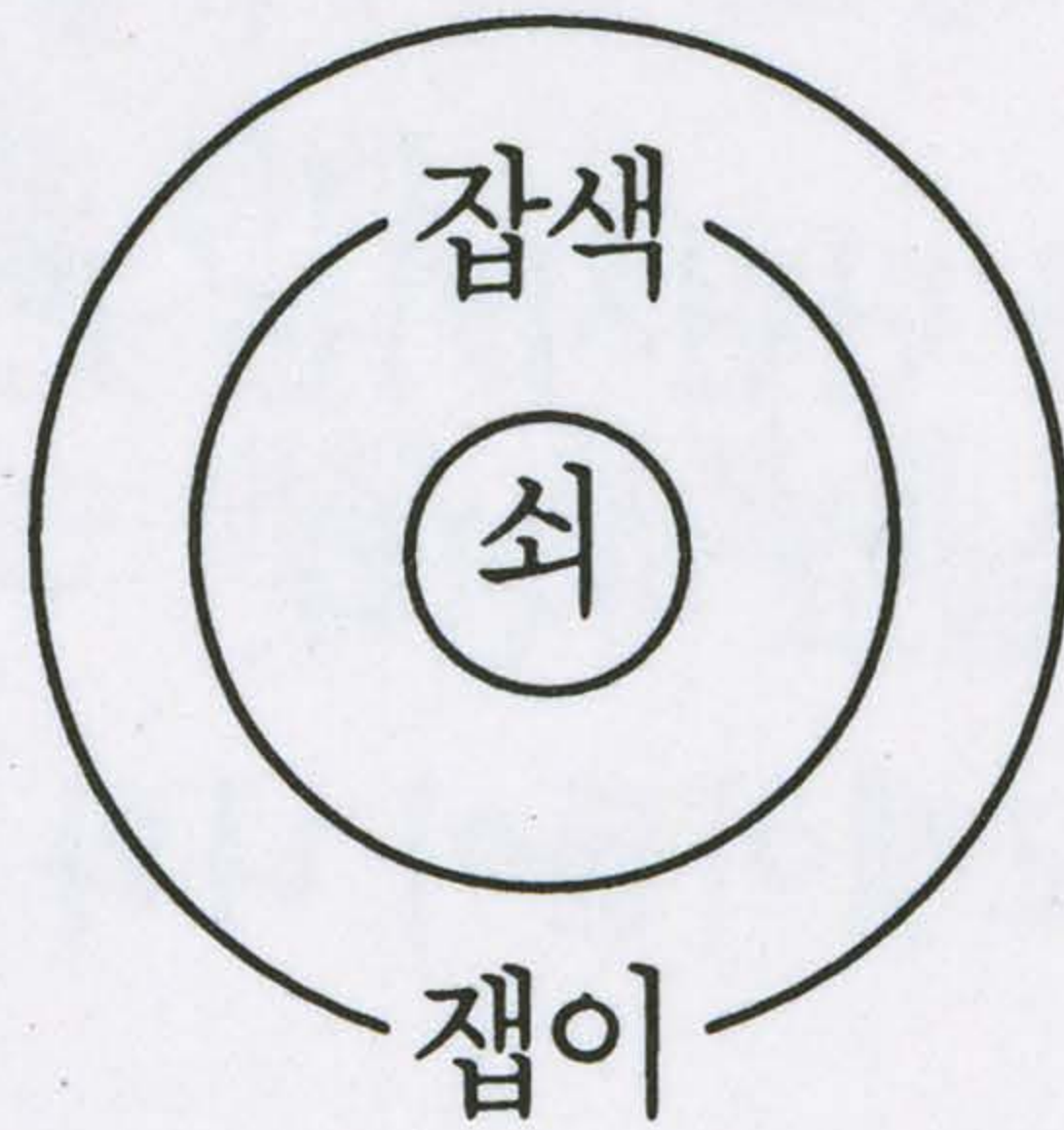
7. 덕석말이(팔진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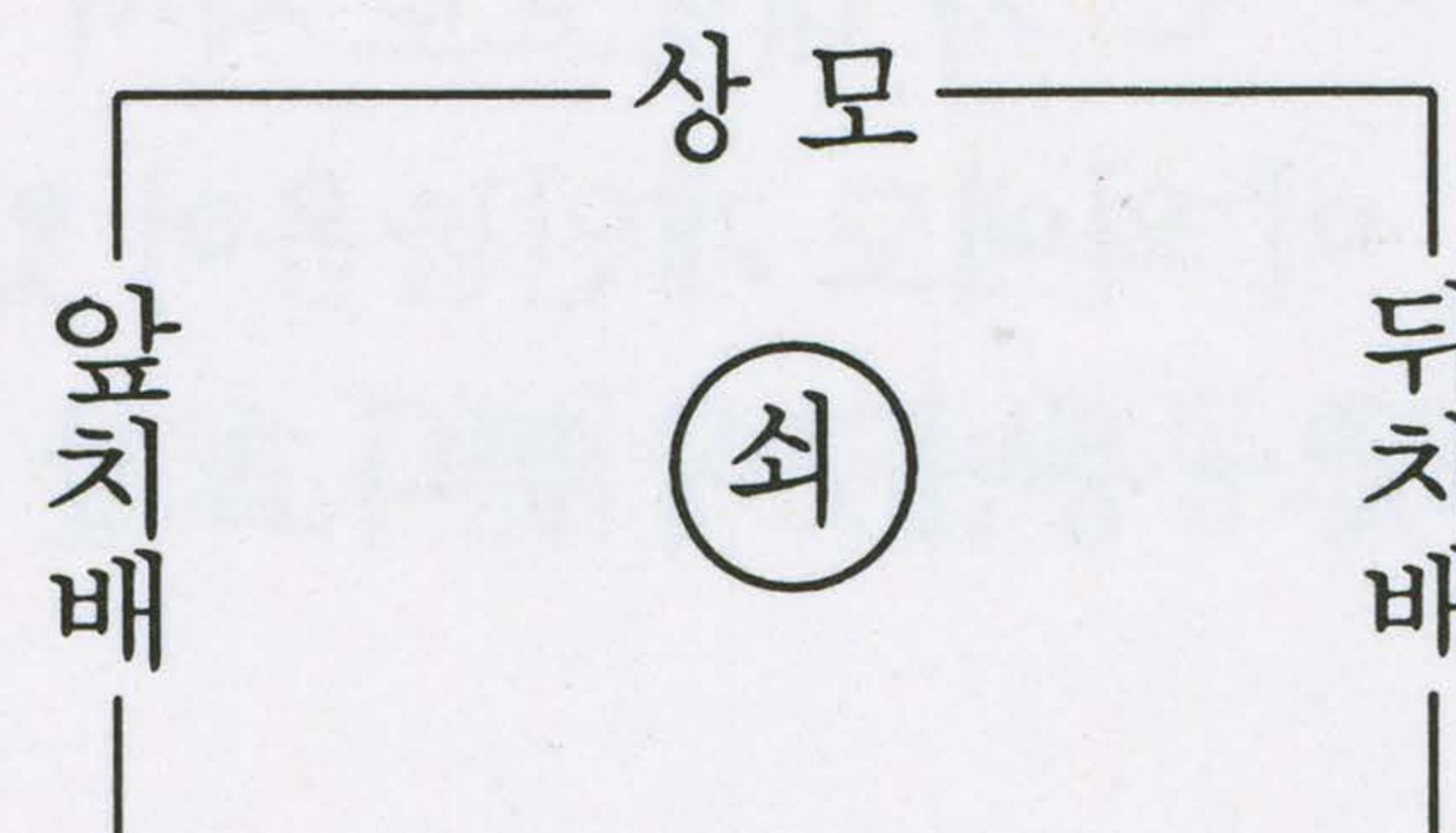
8. 영산굿(연풍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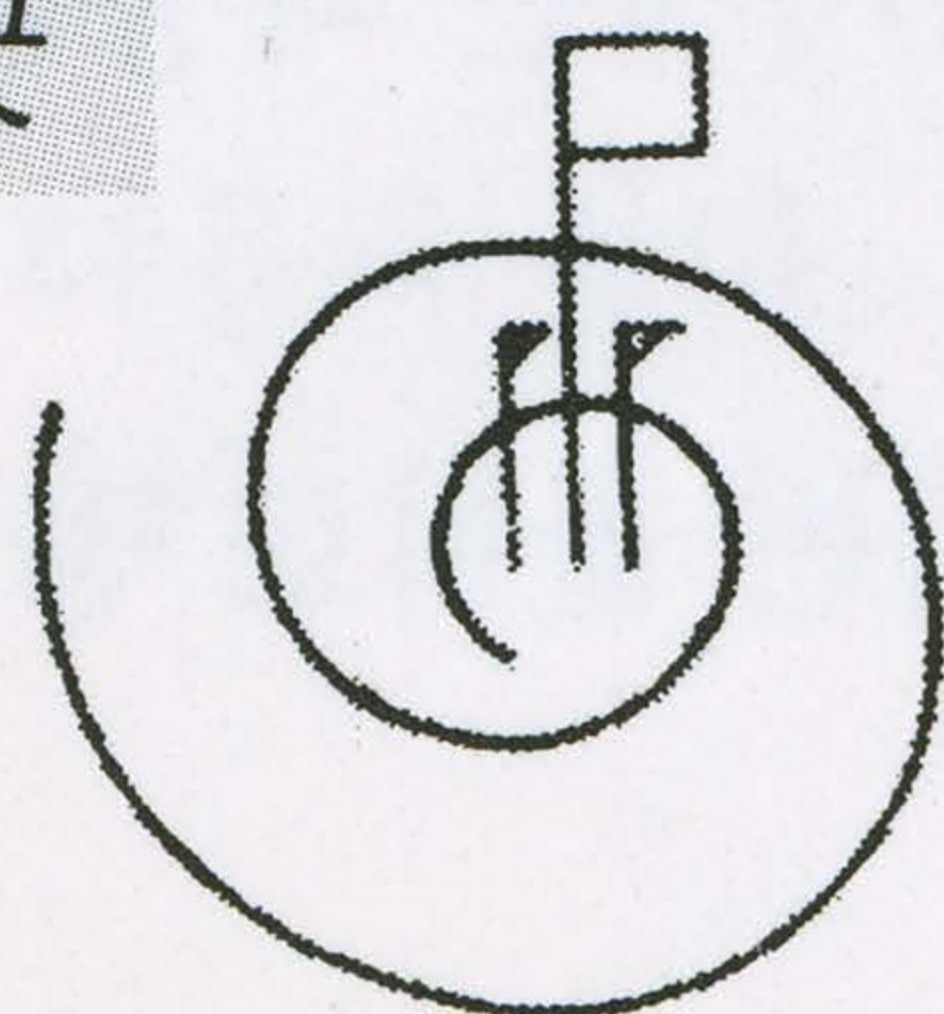
9. 호호굿
(업어배기, 본벅구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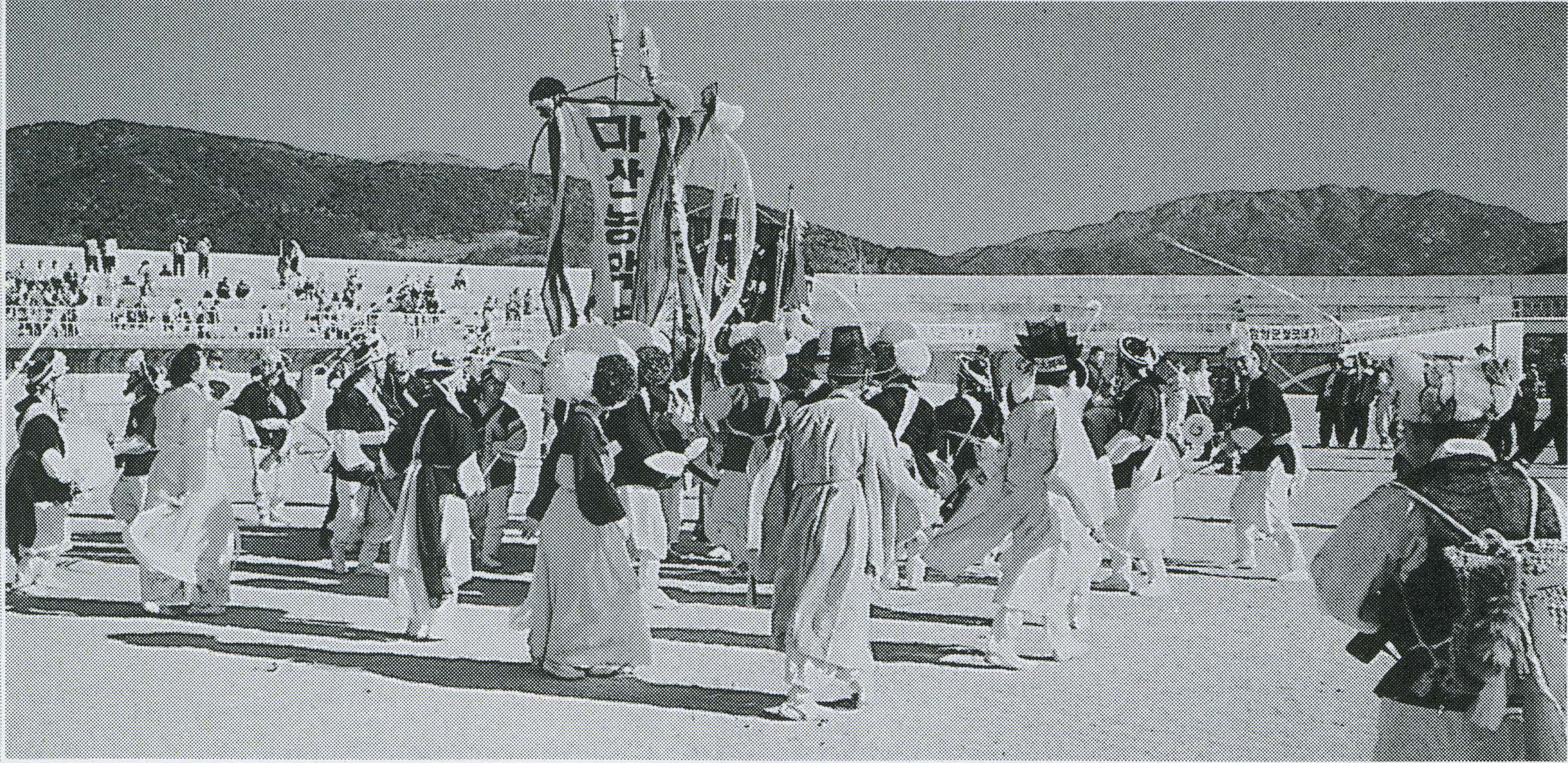
10. 풍년굿(뒤주쌓기, 개인놀이)



11. 날당산굿



마산농악의 판굿 해설



1. **질굿**—가락은 외마치를 치며 입장하여 잽이들을 4열 종대로 만든 후 악을 끊고 휘몰이 가락을 치고 마친 후 인사한다.
2. **들당산굿**—정뎃배기 가락을 치며 덕석말이를 하여 당산에 고한다.
3. **살풀이**—굿거리 장단을 치며 풍년을 기원하는 과장이다.
4. **잽이굿**—가락은 정뎃배기에서 자진뎃배기로 넘어가며 상쇠의 신호에 따라 활잽이를 2회 한다.
5. **오토 지신밟기**—가락은 자진뎃배기로 오방 신장을 달래는 굿으로 상쇠의 신호가락에 따라 동, 서, 남, 북 그리고 중앙 각 잽이들이 원을 만들어 오방을 이룬다.
6. **고사리 꺾기**—이 굿은 원래 도둑잽이 굿이라고 부르는데 가락은 삼채를 치며 원으로 둘러앉아 있다가 풀어나가는 굿이다.
7. **덕석말이**—상쇠가 고사리 꺾기에서 풀어나와 명석을 두 번 마는데 마치 팔자와 같다고 해서 팔진굿이라고도 한다.
8. **영산굿(연풍대)**—이 굿은 판굿의 절정이므로 매우 빠른 가락으로(휘몰이) 쳐서 상쇠가 기교에 따라 연풍대를 들고 마친다.
9. **호호굿(업어배기, 본벅구놀이)**—이 굿은 군사를 단련시키는 굿으로 '호호'라는 구호를 외치고 업어배기를 3바퀴 돌고 본벅구놀이를 들어가 신나게 놀고 마친다.
10. **풍년굿**—'ㄷ'자 대형으로 서서 하는 놀음으로 상모잽이들이 나와 농사짓는 과정을 보여주며 풍년굿을 한다. 이 외에도 개인놀음이 있다.
11. **날당산굿**—풍년굿이 끝나고 잘 놀았다는 뜻으로 당산에 고하며 행하는 놀이로 명석말이를 한다.

마산농악의 복색과 구성



마산농악의 복색 차림은 다음과 같다.

1. 마산농악의 복색은 흰바지, 저고리에 검정 덮저고리를 입고 행전을 매며 좌청룡 우백호와 인간을 상징하는 삼색띠를 두른다.
2. 머리에는 검은 머리수건을 두르고 흰꽃을 이마끈으로 조여맨 후 상모를 쓴다.
3. 잡색 1(양반, 사대부)은 흰바지 적삼에 행전을 매며 도포를 입고, 양반은 갓을 쓰고 담뱃대를 들며, 사대부는 정자관에 구대진사라는 글을 써 붙이고 쓴다. 그리고 손에는 부채와 담뱃대를 든다.
잡색 2(각시, 농부, 화동) 중 각시는 여자 한복을 차려입고 고깔을 쓴다. 농부는 바지 적삼에다 상투를 쓰고 농부 행색을 한다. 그리고 화동은 붉은 두루막에 지팡이를 짚고 머리에는 패랭이에 가화를 껌고서 춤을 춘다.
잡색 3(과계승, 대포수) 중 과계승은 장삼 두루막에 홍가사를 둘러메고 바람을 등에 지고 샷갓을 쓰고 지팡이를 짚는다. 대포수는 호랑이 가죽 모양의 옷 차림에 망태기를 짊어지며 갖가지 짐승을 망태에 달고 총을 가지고 다니며 사냥을 한다.
잡색 4(처녀, 고동수) 중 처녀는 색동 한복에 댕기를 드린다. 고동수는 상투 머리에 흰 댕기를 맨 농부 차림으로 한 손에 고동을 든다.
4. 농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농기, 풍년기, 영기, 나팔수(고동), 태평소, 팽파리, 징, 북, 장구, 상모, 먹벅구, 잡색 등으로 구성된다.

출연진

성명	성별	나이	담당역할	성명	성별	나이	담당역할
박성동	남	35	농기	김대현	남	29	상모
조성구	"	36	풍년기	장종각	"	30	"
소익수	"	65	영기	하구호	"	31	"
김도열	"	48	"	김형수	"	30	"
권재훈	"	82	고동	김인호	"	33	"
홍만표	"	29	태평소	김기환	"	25	"
황필규	"	51	상쇠	김정호	"	24	"
이중수	"	34	부쇠	황용석	"	25	"
김종두	"	41	"	차주홍	"	26	"
감봉득	"	58	"	전상용	"	27	"
김수환	"	29	"	강동민	"	23	"
최대빈	"	33	징	김성한	"	57	"
정성철	"	32	"	이말연	여	43	떡볶구
정주경	"	24	"	김숙희	"	39	"
이왕수	"	37	"	김말숙	"	48	"
황일태	"	40	북	조진숙	"	37	"
김채정	"	31	"	박미숙	"	37	"
강종모	"	34	"	손미애	"	39	"
이경훈	"	38	"	진갑순	"	33	"
강법윤	"	35	"	홍순돌	"	33	"
정영진	"	33	"	석말숙	"	41	"
유한종	"	52	"	문돌숙	"	25	"
유경수	"	27	"	이경우	남	80	사대부
이성도	"	28	"	진삼조	"	71	포수
황효재	"	24	"	이남순	여	70	파계승
신성욱	"	43	장구	박세현	남	38	화동
정경련	여	28	"	안교인	"	76	참방
우서영	"	27	"	박선희	여	31	처녀
황효순	"	24	"	유두선	"	46	각시
진미화	"	24	"	조정혜	"	67	농부
김윤전	"	42	"				

마산농악 수상 경력

- 1987년 11월 진주 개천예술제 대상
- 1991년 6월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농악부 차상
- 1993년 10월 전라예술제 특장부문 전국농악경연대회 대상(문화부 장관상)
- 1995년 9월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대회 문화부 장관상
- 1995년 11월 경상남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최우수상
- 1996년 6월 전주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농악부 장원(국무총리상)
- 1987년~95년 각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일반인들에게 전수 수습회 실시



고증 및 지도위원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강용권	동아대학교	교수	이종대	영남대학교	교수
박성석	진주경상대	교수	심은주	경남국악협회	지부장
박범훈	중앙대학교	교수	박동백	창원대학교	교수